

# 광주·전남 지역 일부 대학 자격증 '불법 대여' 부추겨

## 학교 흥미 '알선방' 도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이 학생들의 국가공인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등 불법을 묵인하거나 앞장서고 있다.

전남지역 S대 종합인력개발센터는 지난달 31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아르바이트 정보)에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구한다는 글(사진)을 올렸다. 내용은 '자격증 대여서 월 25만원, 근무시 일당 5만원 지급'이었다. 학교 측이 직접 나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고 있는 것이다.

S대학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국가공인 자격증 대여 알선이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학과 사무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를 업체에 알선해주고 있는 것이다.

가장 인기 좋은 대여 자격증은 토목과 건축,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한 달 20만~3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건설회사들의 경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급여를 줄 수 없어 정식 고용이 아닌 자격증으로 건설산업법에 규정된 기술자의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판 뒤 자격증을 빌려주고 학비와 움돈을 벌면서 공무원·기업 등의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학교 측도 자격증을 대여한 학생의 경우 취업생으로 간주, 업체와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조선대 공대 4년 박모(28)씨는 "지난해 3월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취업이 안 돼 학교를 통해 한 달에 25만원씩을 받고 빌려왔다"면서 "공대의 경우 4학년 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데 대부분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 공대의 한 조교도 "외부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 오면 학생들과 연결해 주고 있다"면서 "자격증이 필요한 회사와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격증 대여를 알선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 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것도 ▲2004년 2년 ▲2005년 8건 ▲2006년 8건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자격증 불법 대여 감시단'을 구성,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취업 정보지 등의 전문 알선인들을 색출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등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뿐만 아니라 중개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쪽우... 장성댐 방류

방류하기 시작했다.

연일 비로 저수량이 96%에 이르러 제한수위(85.5m)에 육박한 장성댐이 4일 수문 2개를 열고 초당 10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주임댐도 이날 수문 5개를 열고 초당 200t을

/장성=워직령기자 jrw@kwangju.co.kr

## 역주행 사고 2명 사망

4일 새벽 0시15분께 고흥군 남양면 27번 국도에서 고흥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달리던 코란도 승용차(운전자 박모·39)와 마주 오던 세피아 승용차(운전자 이모·45)가 정면 충돌했다. 사고로 코란도를 몰던 박씨와 세피아 승용차에 태고 있던 이씨의 아내(40) 등 2명이 숨지고, 이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코란도 승용차가 역주행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 화순 탄광 무동력 광차 170m 추락

## 광부 3명 중경상

(51)씨 등 2명과 막장에 있던 공모(48)씨가 중경상을 입고 전남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광차의 접감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화순광업소에서는 지난 4월 4일에도 동강 3시간 지하 2km 지점에서 광차 14대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전복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자전거 大盜' 300대 훔친 팔아

○·광주 북부경찰은 4일 도심 주택가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이모(33·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J아파트 77동 현관 앞에 있던 박도(42)씨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300대의 자전거(시가 3천만원 상당)를 훔쳤다는 것.

○·이씨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훔친 자전거를 판매해 왔으며, 제품에 대한 항의에 대비해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생활정보지에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자전거를 쌍값에 판매합니다'는 광고가 수십 차례 실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를 검거.

/이종행 기자 golee@

## 담양 메타세쿼이아 '시름시름'

### 40여 그루에 잎마름병 현상

#### 추수 뒤 방제작업

아름드리 가로수 길이 끝없이 이어져 '초록빛 터널'로 유명한 담양 메타세쿼이아 나무에 잎이 노랗게 변하는 '잎마름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담양군은 담양·순창으로 이어지는 국도 15호선 주변에 늘어선 삼나무과 메타세쿼이아 480여 그루 중 40여 그루에 잎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을 발견, 국립임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원인 분석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달 20일 잎에 작

▲잎마름병=작물의 잎에 누린 반점이나 얼룩무늬가 생기면서 잎이 마르는 병으로 일명 '엽고병' (葉枯病)으로 불린다. 심할 경우 잎이 오그라들면서 허여지고 줄기도 적갈색으로 변해 식물이 쇠약해 진다.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뿌리의 생육이 떨어질 경우 발생하며, 잠마가 끝나고 온도가 높아지는 7~9월 사이에 많이 나타난다.

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돼 최우수상인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었다.



잎마름병으로 말라 죽어가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들.

/담양=나명주기자 mjna@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하나투어

전국대표번호 1588-1134

#### 상품예약 및 문의

(주)풀온우리들

삼무지점 062) 464-8000 (새마을마을 3층)

첨단지점 062) 973-9114 (첨단롯데마트 2층)

광신지점 062) 945-7500 (광신구아마트 1층)

이재수 011-649-6362

유럽/스중/아프리카 ★ 품격있는 추억을 암속드립니다.

서원주 011-602-9128

미국/캐나다/중남미/크루즈여행

민경재 011-608-3456

중국/인도/실크로드 ★ 해외여행 계획 어렵고 힘들까요? 문의주세요 고객님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진일 011-608-0699

Golf투어/동남아/중국/일본 ★ 일본여행/죽어가는 단체여행/여행 특별기획! 예쁜 경치 천국 상담해 드립니다!

## 1등 여행사

## '고객님'은 '주인님'이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코스다상장 30대 우량기업! 9년 연속 해외여행 판매 1위

## 주식연휴 광주에서 바로가는 계림관광

### 천하제일의 산수도

## 계림

계림은 광주성 동북부에 위치한, 이령대 기후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18도 정도이다. 옛부터 이곳에 계수나무가 많아 '계수나무꽃이 만발하는 곳'이라 하여 계림이라 했다.

특색인 카브스트 지역과 아름다운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산청(山淸)-맑은산, 수수(水秀)-빼어난 물, 석기(石奇)-아름다운 물'라 하여 중국의 강산 중 보석이다.

## 특가

### 선착순 10명

>9/15 399,000

>9/19 349,000

★ 광주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직항 상품을 알려 드립니다!!

대선 해외행 드립니다

누구나 티켓을 계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lkpec.or.kr

한국여행객제비행기 티켓판매처

한국여행객제비행기 티켓판매처</p